

오괴정을 통해 본 괴목의 경관성과 문화변용

- 임실 오괴정과 고창 오괴정 비교를 중심으로 -

손희경* · 한상엽* · 노재현** · 김정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조경건설공학과 ·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예로부터 중국 원산의 회화나무는 흔히 괴수(槐樹)라 하고, 길상목(吉祥木)의 하나로 귀하게 여겼으며, 지금도 국내에서는 '학자수(學者樹)'라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나무의 기상이 학자의 기상처럼 자유롭게 뻗었을 뿐 아니라, 주나라 사(士)의 무덤에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회화나무와 느티나무는 살구나무와 은행나무처럼 중국과 한국의 유교 혹은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나무로 주(周)나라에서는 '삼괴구극(三槐九棘)'이라 하여 조정의 뜰에 세 그루의 회화나무를 심은 것을 전거로 우리나라에서는 3정승에 해당하는 삼공[三公: 태사(太師), 태전(太傅), 태보(太保)]이 마주 보고 앉도록 회화나무를 상징적으로 식재하였다¹⁾.

벼슬을 기원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회화나무를 심어서 출세(出世)하거나 또는 출세의 시작인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회화나무를 심어 기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래와 고사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칠인지정 조건 당시 인수를 걸었던 수목이 회화나무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회화나무가 현재 느티나무로 대체 식재된 사유는 무엇일까? 강관권(201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리학의 상징수였던 회화나무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편으로 회화나무로, 다른 한편으로 느티나무로 인식되었다. 지금까지 회화나무를 느티나무로 수용한 이유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회화나무보다 느티나무는 구입이 용이한 속성수일 뿐 아니라, 회화나무에 비해 장수목이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다. 이처럼 회화나무를 느티나무로 인식한 것은 문화변용의 일면이기도 하다.

문화 변동은 문화 요소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재적 변동과 문화 접변으로 인한 외재적 변동이 있는데, 내재적 변동은 발명과 발견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문화 요소가 기존의 문화 요소와 상호 작용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다. 전반적으로 느티나무로 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회화나무가 함께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최소한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접촉한 두 문화의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 고유의 성격을 잃지 않고 함께 존재하는 문화 공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괴정의 이름을 갖는 정자 중 전라북도 고창과 임실에 소재한 '오괴정(五槐亭)'이라는 동명(同名)의 정자명을 갖는 누정을 중심으로 오괴의 의미와 실제 어떤 나무가 심겨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괴목 식재에 담긴 문화변용을 추적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괴목 식재의 의미

괴(槐)자는 형부인 나무(木)와 성부인 '귀신 귀(鬼)'자가 '괴'로 전음된 형성자이다. 그러나 괴(槐)자는 나무(木)가 잡다한 귀신(鬼)을 물리쳐주는 '회화나무(槐)'를 뜻하는데, 이는 회화나무의 옹두리가 귀신의 머리와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회화나무의 꽃은 음력 7월에 연한 황색으로 피는데, 중국 수나라 문제가 실시한 과거시험에 진사시가 있었는데, 진시 시험시기를 괴추(槐秋) 또는 괴황(槐黃)이라 하고 우리나라도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이 회화나무를 심었다. 회화나무는 또한 일장춘몽(一場春夢)의 뜻이 있다. 중국 주나라때는 조정(朝廷)앞에 회화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조정을 괴정(槐庭)이라고도 불렀다. 오래된 회화나무의 썩은 껍질에는 개미들이 살고 있는데, 이를 괴안국(槐安國)이라 부른다.

중국 장안의 가로수가 회화나무로 많이 심었는데, 이는 이 나무가 북쪽지방에 아주 적합하기도 하지만, 열매를 먹거나 황색 물감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중국 주나라 시절에는 사(士)의 무덤에 이 회화나무를 심었는데, 봉건시대 사(士)는 천자(天子), 제후(諸侯), 경대부(卿大夫) 다음의 신분이었으며, 지배층 중 가장 아래 단계에 위치해 있고, 천자의 무덤에 소나무 제후의 무덤에 측백나무를 심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 다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회화나무를 학자수(學者樹) 또는 '선비나무'라 하는데, 이 나무의 가치를 보면 다른 나무와 달리 자유롭게 뻗어 나간 모습에서 자유로운 기상을 통해 학문을 성취할 수 있다는 선비정신에 비유하였다.

1752년 2월 깊은 밤 정선(鄭敼, 1676~1759)이 한 폭의 그림

을 그렸다. 이병연(李秉淵, 1671~1751)과 박창언(朴昌彦, 1677~1731)이 어울렸던 옛 추억의 한 장면이다. 그림 1과 같이 회나무 아래 쌓아 올린 흙 터[槐壇]에서 깊은 밤 이야기 나누던 일을[槐壇夜話]. 1752년 2월 어느 날에[壬申二月]"라고 썼다. 여기서 괴단(槐壇)이란 지명이 나오는데, 어느 곳에 자리한 누구네 집 괴단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선의 외조부 박자진(朴自振, 1625~94)의 집 후원 담장 안에 높이 솟은 측백나무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그림에 나오는 괴단은 이곳이 아니냐는 추론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로는 그림 속 나무는 측백나무가 아니라 회화나무가 분명해 보인다.

'괴'는 존귀함을 뜻해 왕이 있는 궁궐을 '괴신(槐宸)', 최고의 행정기관인 의정부를 '괴부(槐府)', 나라의 외교에 관한 문서를 맡아 본 승문원은 '괴원(槐院)', 3정승의 자리를 '괴위(槐位)', 3정승의 지위를 나타내는 말로 '괴정(槐鼎)'이라고 불렀다. 충북 괴산군을 비롯해 대전 괴곡동, 부산 괴정동 등이 느티나무 '괴'를 지명으로 쓰는 대표적인 곳이다. 느티나무는 수명이 길고 잎이 무성하며 악귀를 쫓는다 해서 예전 관아와 마을 입구, 고개에 심어 오늘날까지 노거수로 많이 남아 있다.

2. 오괴정에 식재된 괴목

1) 고창 오괴정

오괴정은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고수삼거리에서 문수사방면으로 약 500미터 가면 예지마을에 있는 조선 시대 정자이다. 이 정자는 죽산안씨 사과공 안자전(安子詮)이 처음 터를 정하였고, 안복(安福), 안지(安祉) 형제가 느티나무 다섯 그루를 심은 것에서 연유한다. 그 뒤에 후손 괴정공(槐亭公) 안국태(安國台)가 정자를 지어 오괴정(五槐亭)이라 하였다.

예지마을 뒤편에 화강암반 위에 1동의 정자가 위치한다. 정자에 걸려 있는 현판에는 오괴정이라 쓰여 있으며, 정유오월에 건



그림 1. 겸재 정선, 괴단야화도(槐壇夜話圖), 1752, 종이, 32×51cm, 개인소장



그림 2. 고창 오괴정

립되었다. 정자 주변에는 7그루의 노거수가 심어져 있는데, 마을에서는 당산나무로 불리며 입석 1기가 세워져 있다. 또한, 정자 아래에는 연못이 있는데, 주변에 문화마을이 조성되면서 수로가 놓여 연못의 물이 4년 전에 말라 버렸다고 한다. 마을주민에 의하면 여기 암반의 모습이 거북이를 닮았고, 연못의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북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북이의 머리부분에 정자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암반에는 일감당(一監塘)이라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다.

2) 임실 오괴정

오괴정은 퇴계리(磊溪里)에 세거(世居)한 해주오씨 입향조(入鄕祖)인 돈암(遯庵) 오양손(吳梁孫)이 지은 정자(亭子)로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167호로 지정되었다.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커다란 느티나무와 참나무숲에 둘러싸여 주변 경관이 수려하다.

정자는 잘 다듬은 화강암 주춧돌 위에 짧은 누하주를 받치고 두리기둥을 세워 지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기와로 된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며, 가운데에 방을 두고 사방에 퇴를 두른 전형적인 호남지방의 정자이다. 방에는 사방에 들어 열개문을 달아 필요할 때 주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고, 마루 주위에는 사방으로 계자가 난간을 둘렀다. 오양손은 한훤당 김굉필(1454~1504)의 문인으로 벼슬은 참봉이었다. 1519년(중종 14년)에 을묘사화가 일어나서 정암 조광조 등 많은 어진 선비가 화를 입은 것을 보고 그는 처음에는 수원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1521년(중종 16년)에 남원 말천방 목기춘으로 터를 잡아 옮겨왔다. 그가 이 마을에 들어와 은거하면서 정자를 짓고 그 옆에 다섯그루의 괴목(槐木)을 심어 정자의 이름을 오괴정이라 이름 지었다. 이것은 옛날 중국의 왕진(王晉)이 세 그루의 괴목을 심은 고사를 본 딴 것이다. 확인 결과, 임실 오괴정에는 느티나무도 있지만 괴목으로 심은 나무는 회화나무로 밝혀졌고, 그 잔존목과 후계목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그림 3. 임실 오괴정

III. 마무리하며

본 연구는 수목 식재 사례를 통해 괴목의 문화변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고창 오괴정을 구성하는 수목은 느티나무인 반면, 임실 오괴정에 식재된 수목은 회화나무였음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동일한 '괴(槐)'를 주체로 하는 오괴정이라는 당호 구성의 근원이 한쪽은 느티나무로, 또 한쪽은 회화나무였음은 괴목 식재에 담긴 함의의 일관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화상징을 표현하는 대용물인 식재수종에는 적잖은 혼용이 있었음을 일깨워준다. 최소한 조선시대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2종 수목에 대한 지칭과 사용상의 혼재가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직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식재 수목의 문화변용을 충분히 논의하

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특히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문화접변을 통한 문화변용의 유사 사례에 대한 충분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연구 한계로 느낀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 분포하는 다수의 괴정(槐亭)의 식재 사례 검토를 통해 식재문화의 융합·동화·공존현상에 대한 보다 다양화되고 깊이 있는 연구 확대의 필요성을 느낀다.

주 1. 회화나무를 심는 풍속 때문에 3공(三公)의 위(位)를 괴위(槐位)라 하였고, 대신의 가문을 괴문(槐門)이라 불렀다. 또 회화나무를 심으면 출세한다고 하였고, 선비가 이름을 얻은 뒤에 물리날 때에도 회화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문화를 낳는 데는 나무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회화나무의 꽃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음력 7월경 연한 황색으로 핀다. 이렇게 회화나무 꽃이 필 무렵 중국에서는 과거 중 진사 시험을 치렀다. 그래서 이 시기를 괴추(槐秋)라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를 보러 가거나 합격했을 경우, 집에 회화나무를 심곤 했다. 회화나무는 유학을 유교로 삼은 한나라를 거치면서 한층 중요한 나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1. 노재현, 한상엽, 김정문, 정푸름(2017) 포항 칠인정원림(七印亭園林)의 조영특성과 '괴목(槐木)' 식재(植栽)의 문화변용(文化變容),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3): 22-31.
2. 강관권(2015) 중국과 한국의 수목인식과 문화변용: 회화나무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18: 113-142.
3.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4.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